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김석영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증권,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6년 9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의 겸업화가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노출됨. 이에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함.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임.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중국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중국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으로 구성된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였음¹⁾

- 중국 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1997년 이전까지 증권시장을 제외한 기타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기능을 함께 수행하였음
 - 1992년 10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증권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설립되었음
- 1998년 11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 2003년 4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인민은행에서 각각 분리되어 설립되었음
- 2003년 4월부터 인민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및 통화정책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각각 증권, 은행 및 보험 부문의 감독기능을 수행함
 - 인민은행,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동일한 행정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종속관계가 없음
 - 인민은행은 정부기관이며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²⁾(한국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임

■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은행 및 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및 회사 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 1) 중국 정부는 1997년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제1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에서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
- 2)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지만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음

- 2017년 은행업과 보험업 전체 자산규모는 252조 위안, 17조 위안으로 2001년 17조 위안, 5조 위안과 비교할 때 각각 235조 위안, 12조 위안이 증가함³⁾
 - 2016년 은행은 273개로 2004년 128개보다 145개가 증가하였고, 2016년 보험회사는 158개로 2004년 54개보다 104개가 늘어났음⁴⁾
 - 2016년 중국의 은행 가운데 대형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및 농촌상업은행은 각각 5개, 12개, 134개, 1,114개임
 - 2016년 중국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각각 77개, 81개임
- 2006년 9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의 겸업화가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노출함
- 2006년 9월 보험회사의 비상장 은행 지분 투자가 허용되었고, 2012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의 은행 등 상장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 한도는 크게 상향되었음
 - 2012년 하반기부터 일부 중국 보험회사(안방보험, 전해보험 등)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입을 통해 은행 및 부동산 기업을 인수하면서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18년 3월 여러 상장 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한 안방보험은 재무건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영권이 중국보험안정기금에 일시적으로 인수되었음
 - 이는 중국 증권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증감회는 보감회와 서로 간의 종속관계가 없고, 정보공유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의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행위에 감독조치를 취하지 못함
- 2012년부터 P2P금융 등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2016년 일부 P2P금융 기업이 다단계 금융사기로 적발되면서, P2P금융 감독 기구인 은감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가 문제시됨
- 2016년 1월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e쭈바오 사건의 피해자는 90만 명, 피해 규모는 756억 위안(한화 약 12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은감회가 P2P금융 등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산업정책과 감독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핀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은감회의 감독 정책업무 및 집행업무를 분리하고, 은감회는 감독집행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7. 7),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2016年报”

4)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7. 2), “2016年人身保险公司原保险保费收入情况表”, “2016年财产保险公司原保险保费收入情况表”

■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 수립 후 20년이 지난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은감회와 보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이하, '은보감회')를 신설함⁵⁾

- 2018년 3월 은감회와 보감회의 합병 등 정부기관 조정 내용을 담은 '국무원기관개혁방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통과됨
 - 개혁방안은 은감회와 보감회가 수행했던 중대 법규 제정 및 건전성 감독의 권한을 인민은행에 이관하기로 명시함
 - 통합 이전까지 각각의 감독기관은 독립적인 동급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18년 8월 발표된 '은감회와 보감회의 인사 합병방안'은 총 39개의 은감회와 보감회 부서(은감회 24개, 보감회 15개)를 27개 부서로 축소할 것을 명시함

■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업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는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으로 커질 것으로 보임⁶⁾

- 중국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협력은 판매 계약 단계에 국한되어 보험회사는 은행을 판매채널로, 은행은 보험 판매를 수수료 수익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업권별 감독규제체계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판매 제휴 이외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으로 과거의 업권별 감독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은행계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계 은행은 고객 니즈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⁷⁾

-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행위규제를 두 개의 감독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건전성 감독기관 및 행위규제 감독기관 외에 재정부, 중앙은행 등 감독유관기관들 간의 정책공조 및 협력을 위한 협의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감독기관 및 감독유관기관 간의 협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함
-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 신설된 은보감회가 향후 증감회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5) 2017년 4월 보감회 전(前)주석 상준보(项俊波)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보감회 주석 자리가 공석이 되고, 보감회 내부의 반발이 적어 통합에 큰 문제가 없었음. 은감회는 36개 성(省)급 파출기구 외에도 306개 시(市)급 파출기구 및 1,730개 현(縣)급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약 2만 5천 명인 반면 보감회는 성(省) 및 시(市)에서 36개 파출기구를 설치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약 4천 명으로 은감회 직원 수보다 적음

6) 凤凰网(2018. 3), "银保合并如何影响银行业"

7) 中国新闻周刊网(2018. 3), "银保合并背后的监管逻辑"

-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중국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중국시장의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 통합으로 인한 중국 은행업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여 국내금융시장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편이 검토되어야 함
-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새로운 감독체계에서의 사업가능성 및 성장성을 점검해야 함 **kiri**